“전통매듭 원리, 중도 · 화엄과 맞닿아”

박선희 이수자, ‘선학’ 기고 논문서

전통매듭 조형원리 불교로 고찰
중심 유지 잠자리 매듭은 ‘중도’
시작 · 끝 없이 이어진 반장문은
화엄 연기 상징 법계도와 유사

매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전통공예이다. 이 같은 매듭의 조형원리가 불교의 중도 · 화엄 사상과 맞닿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박선희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학과 박사 수료)는 최근 발간된 한국선학회 학술지 〈선학〉 제46호에 발표한 논문 ‘매듭 조형에 대한 불교 원리적 고찰’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통 매듭 중 잠자리 매듭

박 이수자는 매듭 기법 중 8사짜기, 잠자리 매듭, 국화 매듭 등을 예로 들며 각각의 조형 원리가 중도와 연기, 화엄 사상과 맞닿아 있음을 분석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유지해야 하는 잠자리 매듭의 경우 박 이수자는 중도와 연기에서 조형 원리를 찾았다. 실제 잠자리 매듭의 조형과정은 좌우의 두 끈이 순서에 따라 좌우전후로 작용하다가 한 곳에서 만나 매듭이 이룬다. 어느 한 과정만 잘못돼도 제대로 된 조형은 나오지 않는다.

박 이수자는 “잠자리 매듭의 조형은 철저히 연기의 법칙이고 드러난 이치는 중도”라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는 곧 정도다. 매듭 조형도 순서에 따라 정도를 가야 중심이 잡힌 조형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국화매듭과 반장문은 화엄 사상에서 조형 원리를 찾았다. 국화매듭을 중국과 일본에서는 반장결(盤張結)이라 부르며, 불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팔보문의 하나인 반장문은 ‘윤회하고 순환함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 일체가 형통하고 분명하다’는 뜻을 가진다.

또한,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반장문은 화엄사상의 요체를 내포한 ‘법계도’를 연상시킨다는 게 박 이수자의 주장이다.

박 이수자는 “‘법계도’는 상징을 통해 법계의 이치를 드러낸 것이고, 반장문은 만다라처럼 본질의 경지를 그림으로 구상화한 것”이라며 “매듭 조형 중에서 반장문 형태를 갖고 있는 국화매듭 역시 단순한 장식적 문양이나 의미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화 매듭에 담긴 화엄적 원리로 인해 궁중 · 종교의식에서 몸에 지니는 장신구로 많이 사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매듭의 전승과 장인 정신은 사자상승과 선의 원리로 풀어냈다. 박 이수자는 “실이라는 간단한 재료로 불교적 상징을 갖는 공예품으로 개념전환이 일어나려면 엄청난 사상력의 도약이 필요하며, 공예품의 기원은 이러한 인간의 의식이 표출된 것”이라며 “매듭 장인이 실이라는 재료를 화두삼아 이뤄낸 불교 매듭은 정신 집중과 도약이 엮어낸 결정체다. 장인과 수행자가 갖는 태도와 방법은 다르지만, 장인정신과 선의 정신은 각자 화두를 통해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반상문이 포함된 국화매듭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융사상, 현실 적용할 연구 필요”

원융종, 창종 4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원융종(총무원장 진호)이 창종 40주년을 맞아 원융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원융종은 6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원융종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창종 4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원융종의 발전을 위해 원융사상의 교리적 발전과 도제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발표논문 ‘원융종 창종의 종교사회학적 의미’를 통해 원융종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원융사상의 교리적 발전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연구원은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원융사상의 적용가능성 연구는 원융종의 사회참여 활동에 효과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원융종의 조직 역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하며, 종단 구성원의 관심사가 종단 핵심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는 ‘한국불교의 종교지형 변화와 원융종의 전망’을 통해 도제양성 등 인재불사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차 교수는 “종단 발전의 중요한 요인은 사람이다. 도제든, 신도든 지적 능력과 덕성을 지닌 인재가 지속적으로 원융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면서 “장학제도를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으로 실력을 갖춘 인재 영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단 발전의 기조를 세울 것을 다짐했다.

진호 스님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종단 내실을 재정비해 대외적 위상 강화와 교세 확장에 중점을 둬 한국불교 중심종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원융종은 6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원융종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창종 4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宋代 선종 선사상 진면목을 논하다

한국선학회, 23일 춘계 학술대회

북송시대 선종 공안집의 출현과 이에 나타난 선사상을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는 6월 23일 오후 1시 우리함께 빌딩 5층 조계종 포교사단 강당에서 ‘북송시대 공안집의 출현과 선사상’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남송시대 선사와 사대부 사이의 철학 쟁점’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로 시작된다.

이후 ‘단하자순 송고에 대한 고찰(김호귀 · 동국대)’, ‘공안집에 나타나는 선과 시의 융합적 특징(유지원 · 동국대)’, ‘선어록의 몇가지 문구 검토(박영록 · 교통대)’, ‘공안집의 등장과 참구(명법 스님 · 은유와마음연구소)’ 등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한국선학회는 “지난해는 당대의 선사상을 살펴봤다면 올해는 북송시대 공안집과 선사상을 논의한다”며 “12월에 열릴 동계 세미나에서는 남송시대의 선사상과 신유학의 관계를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로 ‘과학기술’을 철학하다

주목! 학술서

이상헌 세종대 교수
‘첨단과학과 불교’ 발간

AI · VR 등 첨단과학 분야
불교 · 철학적 관점서 고찰
“기술, 인간 얼굴 찾아줘야”




이상헌 세종대 교수〈사진 왼쪽〉와 그의 저서 〈첨단과학과 불교〉. 기술철학을 연구하는 이 교수는 불교 철학을 통해 욕망의 얼굴을 한 기술사회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부터 냉동인간 · 생명공학까지 첨단과학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은 자칫 한쪽으로 경도되기 쉽기 마련이다. 불교를 잘 알면 과학 · 공학적 이해가 부족하고, 과학을 잘 아는 경우 불교적 이해가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철학을 연구해 온 이상헌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가 최근 발간한 〈철학자의 눈으로 본 첨단과학과 불교〉는 주목할 만하다. 불교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고찰이 균형있게 기술돼 있어서다.

이는 기술철학을 연구하게 된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 교수는 한 때 첨단과학기술에 매료돼 이를 알아가는 데 노력했고, 기술을 긍정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쌓이자 이내 철학 전공자로서 비판적 시각이 살아났다.

과학기술의 내용보다는 기술의 철학적 함축, 그리고 그 기술이 실현되었을 때 인간의 삶과 사회, 문명에 대한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교수의 〈첨단과학과 불교〉는 자신이 가진 관심과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결과물이다.

이 교수는 저서에서 욕망의 얼굴을 한 현대 기술에 다시 ‘인간의 얼굴’을 찾아줄 수 있는 대안으로 불교 사상과 철학을 꼽는다.

근대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저서 〈새로운 아틀란티스〉를 통해 과학과 기술을 통한 새로운 유토피아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자본의 논리가 과학기술을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욕망과 자본의 관계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역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교수는 욕망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불교경제학을 제시한다.

“불교경제학은 노동을 보는 관점에서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과 다르다. 노동을 생산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생산과 소비활동, 기술의 활용은 타인을 해롭게 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불교적 관점을 택한다면 이런 행동을 통해 타인을 이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점점 더 발전할수록 철학적 배경이 탄탄해야 하는 까닭은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 · 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다. 그간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철학적 논의들이 서양철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 책은 불교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해와 화두들을 던진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계, 하계 워크숍 잇달아

불교학硏 ‘교단 화합’
보조사상 ‘원효 설화’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불교학계가 다양한 주제의 하계 워크숍 준비에 한창이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6월 30일~7월 1일 양산 통도사에서 ‘불교교단의 화합,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화합이란 무엇인가’를,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이 ‘교단의 화합 실천에 있어 지도자의 역할’을,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한국불교의 미래와 화합의 필요성’을 각각 발표한다. 이후 임승택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불교교단 화합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불교학연구회 여름 워크숍은 회원과 학자, 스님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인 3만원, 2인 5만원. 문의 (010)4313-2122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은 오는 7월 20~21일 순천대와 송광사 일원에서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종수 순천대 교수가 ‘지리산의 원효설화와 배경’을,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원효의 징서가에 대해’ 등을 각각 발표한다.

교수, 강사 등 연구자와 학생은 참가비가 무료이며, 일반 불자, 후원회원은 참가비 5만원이다. 신성민 기자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6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